**하쿠산 국립공원(팸플릿)**

<책자/바깥쪽 페이지>

<표지>

**하쿠산국립공원**

<인트로 페이지>

**하쿠산**

**성스러운 것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산**

하쿠산 국립공원은 이시카와, 후쿠이, 기후, 도야마 4곳에 걸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발 2,702m까지 치솟은 하쿠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후지산, 다테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영봉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white mountain’이라는 뜻의 하쿠산은 겨울 동안 두꺼운 눈으로 덮입니다. 봄이 되면 눈 사이에서 초록색 싹이 얼굴을 내밀며, 머지않아 한여름에는 각양각색의 고산식물이 꽃을 피우는 초원이 나타납니다. 가을에 숲은 타오를 듯한 빨강, 오렌지, 노란색으로 물든 잎이 수놓습니다.

하쿠산은 다이초(682-767년)라는 승려가 717년에 처음으로 등정하여 수행한 후, 영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이초는 불교, 신도, 산악신앙의 가르침을 도입한 수험도라는 종교의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자는 대부분 영봉에서 수행과 의식을 거행합니다. 신성한 산과 수험도의 연계를 나타내는 것은 하쿠산 세 봉우리 중 가장 높은 고젠가미네(2,702m)의 정상에 있는 시라야마히메 신사 오쿠미야입니다. 오쿠미야 기도전은 무로도 산막의 정면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눈 아래로 ‘운해’라고 불리며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훌륭한 구름층과 맞은편에 우뚝 솟은 북알프스 산들의 경치를 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쿠산은 화산으로, 마지막 분화는 1659년에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산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도 산기슭에 있는 수많은 온천의 열원입니다.

하쿠산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해발 1,600m 이하의 산기슭에는 너도밤나무와 사스래나무로 이루어진 자연림이 펼쳐지며, 해발이 더 높은 장소에는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 대신 여름 동안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는 고산식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꽃 중에는 하쿠산 앵초(학명: Primula cuneifolia Ledeb. var. hakusanensis)와 하쿠산 쥐손이풀(학명: Geranium yesoemse var. nipponicum) 등 하쿠산과 연관 지어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습니다. 또한 검독수리, 여우, 반달가슴곰, 일본산양 등 대형 야생 새와 짐승의 서식지입니다. 1980년 하쿠산은 일본에서 손꼽는 자연이 풍부한 국립공원으로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UNESCO Man and the Biosphere)에 입각한 ‘생물권 보존 지역(유네스코 파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의 기후, 기온, 일출 및 일몰 시각 페이지>

기온은 지난 몇 년간의 평균 기온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일기예보를 확인해주십시오.